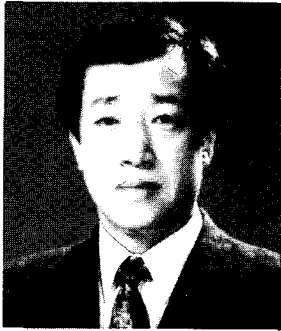


##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구축 방안

—INDITEL(인천종합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배 해 영  
(인하대학교 교수)

오늘날의 기업은 과히 정보의 전쟁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계의 금융시세라든가 기술, 특허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기업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을 것이며 발전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는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를 통해서 밤시간 동안 변화된 회사내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파악한 후 시시각각 변해가는 증권시세나 세계 각국의 신문·방송의 소식을 보고 또 다른 국가의 기술현황 등을 체크하는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고도의 정보화사회라는 말은 1980년대 발생한 것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포함한 사회 전체로 확대된 정보화사회이다. 정보화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화사회란 정보의 가치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사회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대다수의 노동 인구가 정보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더 한층 증가하여 정보의 가치가 극대화 될 것이다.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확신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세계 정보산업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어 1980년대 후반 국내에서도 통신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데이콤, 한국경제신문사 등을 통해 홈쇼핑이나, 신문기사서비스, 증권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통신의 HiTEL, 데이콤의 「천리안」과 포스데이타의 POS-Serve등을 중심으로 수십여개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관이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지방의 사용자들은 그 지역에 필요하거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통신 연결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위치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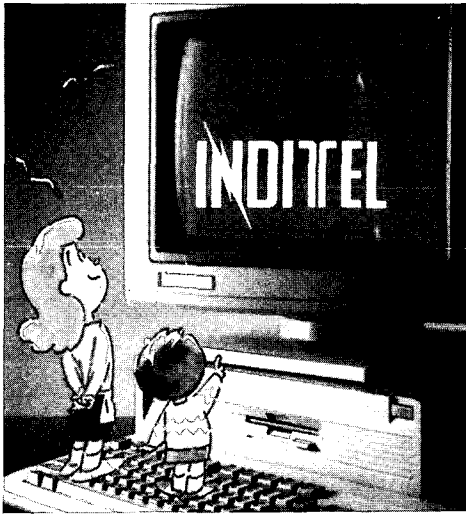
자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방면의 정보가 서울 중심으로 흘러 지방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고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정보통신기관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내의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보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지역중심의 정책결정, 사업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뉴 미디어의 보급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문화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정보화는 지역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역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지역민들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정보화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보를 구축하여 타지역에 자기 고장을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정보화로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각기 그 개발목적을 달리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자의 예로는 가정마다 미니텔이라는 단말기를 보급하여 전화번호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랑스의 경우가 있다. 미니텔 서비스는 정부의 주도로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 졌

고, 기존의 전화망을 통해 전화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일본이 있다. 이 경우에는 오이타 현과 벳부市를 모델도시로 정하여 각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추 정보화시스템을 이룩하여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관광산업 발달에 일조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산업계와 일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를 시도하는 인천의 경우, 지역정보의 고유화에 주안점을 두고 「인천정보통신센터」를 설립하여 ‘인디텔(INDITEL)’이라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INDITEL은 ‘INcheon Database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지난 88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한국통신의 ‘HiTEL’, 데이콤의 ‘천리안’ 등과 같은 성격의 정보망으로, 인천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반인, 기업체에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디텔운용을 전담하는 인천정보통신센터는 인천직할시, 인천시 교육청, 인천상공회의소, 새얼문화재단, 경기은행, 인천일보, 인하대 등 인천의 대표적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의 힘을 빌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정보망을 구성하고 서해안시대의 중추 도시로서 첨단 정보화 도시로 탈바꿈할 계기를 인천의 경우는 인디텔을 개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디텔이 제공하는 정보 메뉴는 크게 ※뉴스속보 등 “빠른 소식”, ※교통, 물가정보 등 “편리한



생활”, ※문화, 예술, 종교 등 “풍요로운 삶”, ※긴급전화, 전화번호안내 등 “114서비스”, ※각종 산업동향 등 “산업, 경제”, ※“교육, 전문지식”, ※“정치, 행정”, ※전자우편, 대화방 등의 “인디텔 광장”, ※사용안내 등과 “HELP-DESK”로 나뉘어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디텔은 인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영화,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등을 지역 주민에게 활발히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꾀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보의 공유의식, 공동체 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 독창적인 인천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 상공인들의 지원으로 지역내 기업의 동향이라든가 수출입등 경제동향, 각종 통계를 분석해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천은 인디텔을 통하여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인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여 새롭게 변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인디텔서비스의 개발경험으로 얻어진 교훈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기 지역의 생활, 문화, 예술정보를 지역민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간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육성 및 그 이용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망과 연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대민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지역의 특성상 발생한 종합정보(예로서, 무역항으로서의 항만정보, 서해안 전진기지로서의 주변국의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전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첫번째의 경우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할 것이지만 둘째, 셋째, 넷째의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정보산업에 관한한 우리는 그 산업적 중요성에 비해 인식도 부족했고 낙후된 분야로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정보화의 구상이 제대로 실효성있는 발전 전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지원이 중요하며 민간기관 및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여타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모든 관련 조직과 산업계가 기성의 사고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하겠다. [B]